

이 보도자료는 2023. 1. 26. 10:30부터 배포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박승환

전화 02-530-4780 / 팩스 02-536-5410

보도자료

2023. 1. 26.(목)

재벌가 3세, 연예인 등이 가담한 대마사범 집중수사 결과 - 재벌·중견기업 2~3세, 前 고위공직자 자녀 등 20명 입건, 10명 구속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 관련 사건을 공소제기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불기소처분 사건으로서 혐의사실과 불기소이유, 피의자, 처분일시, 죄명, 처분주문, 수사경위, 수사상황 및 수사의 의의 등(제10조 제1항, 제2항)

●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22. 9.부터 4개월 간 재미 교포로부터 공급받은 대마를 유통한 재벌가 3세 등에 대하여 직접수사한 결과, 총 20명을 입건하여 그 중 17명을 기소(구속 10명, 불구속 7명)하고, 국외 도주한 3명을 지명수배하였음

※ '22. 9. 10.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검찰이 대마 유통 및 대마 재배 등도 직접수사 개시 가능

● 재벌·중견기업 2~3세 6명, 前 고위공직자 자녀, 연예기획사 대표, 가수 등 입건된 대마사범들의 경력, 직업, 사회적·경제적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사건의 실체에 따라 엄단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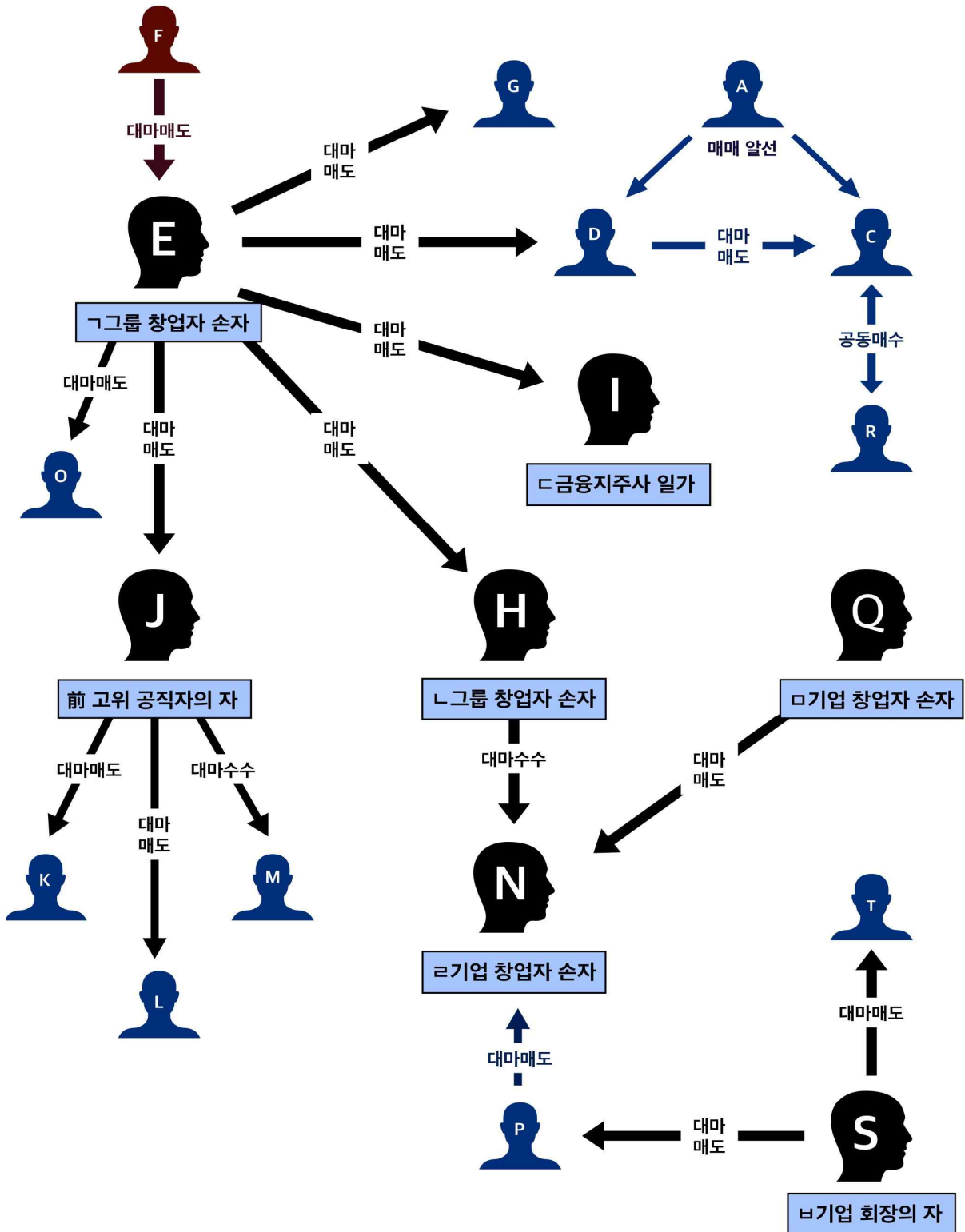
● 수사 과정에서 임신 중인 처와 함께 '태교여행' 중 대마를 흡연한 사범이 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 대마범죄로 단속,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할 정도로 입문 마약류인 대마의 중독성과 의존성이 심각함을 확인하였음

● 최근 마약이 연령·계층·성별·지역을 불문하고 확산될 뿐만 아니라, 마약 사용에 대한 죄의식도 약해지고 있는 바, 다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마약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할 예정임

1

피의자 및 피의사실 요지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

순번	피의자	직업 등	피의사실 요지	처분
1	A(39세)	무직	'22. 5~9. 대마 매매알선 5회, 대마 7g 소지(송치사건 피의자)	'22. 10. 7. 구속 기소 '22. 11. 23. 추가 기소
2	B(33세)	회사원	'22. 7~10. 대마 매수 3회, 대마 12g 소지, 대마 흡연	'22. 10. 24. 구속 기소
3	C(40세)	미국 국적, 가수	'22. 3~10. 대마 매수 5회, 대마 재배, 대마 148g 소지, 대마 흡연	'22. 11. 8. 구속 기소
4	D(36세)	무직 (G와 형제지간)	'22. 5~10. 대마 매도 5회, 대마 매수 1회, 대마 8g 소지, 대마 흡연	'22. 11. 14. 구속 기소
5	E(40세)	무직 (ㄱ그룹 창업자 손자)	'22. 10. 대마 매도 1회, 액상대마 62ml, 대마 14g 소지, 대마 흡연	'22. 11. 15. 구속 기소
6	F(38세)	미국 국적, 사업	'22. 10~11. 대마 매도 1회, 대마 58g 액상대마 130ml 소지, 대마 흡연	'22. 11. 17. 구속 기소
7	G(43세)	무직	'22. 9~10. 대마 매수 5회, 대마 매도 1회, 대마 흡연	'22. 11. 29. 구속 기소
8	H(39세)	회사원 (ㄴ그룹 창업자 손자)	'22. 1~11. 대마 매수 4회, 대마 1g 소지, 대마 흡연	'22. 12. 2. 불구속 기소
9	I(38세)	사업 (ㄷ금융지주사 일가)	'22. 10. 대마 매수 1회, 대마 흡연	'22. 12. 2. 불구속 기소
10	J(45세)	사업 (前 고위공직자의 자)	'22. 3~10. 대마 매수 4회, 대마 매도 5회, 대마 수수 2회	'23. 1. 26. 불구속 기소 ※ 자수
11	K(45세)	사업	'22. 7~9. 대마 매수 2회, 대마 수수 1회	'23. 1. 26. 불구속 기소 ※ 자수
12	L(43세)	컨설팅회사 이사	'22. 3~11. 대마 매수 3회, 대마 수수 1회, 대마 흡연	'23. 1. 26. 불구속 기소 ※ 자수
13	M(45세)	캐나다 국적, 무직	'22. 9~10. 대마 수수 2회	'23. 1. 26. 기소중지 ※ 해외 출국
14	N(39세)	회사원 (ㄹ기업 창업자 손자)	'22. 7~11. 대마 매수 3회, 대마 수수 3회, 대마 흡연	'22. 12. 23. 구속 기소
15	O(38세)	회사원	'22. 2~10. 대마 매수 2회, 대마 흡연	'23. 1. 26. 불구속 기소 ※ 자수
16	P(36세)	미국 국적, 회사원	'22. 7~10. 대마 매도 2회, 대마 흡연	'23. 1. 9. 구속 기소
17	Q(43세)	미국 국적, 회사원 (ㄹ기업 창업자 손자)	'21. 7~22. 2. 대마 매도 2회	'23. 1. 26. 기소중지 ※ 해외 출국
18	R(43세)	연예기획사 대표	'22. 7. 대마 매수 1회	'23. 1. 19. 구속 기소
19	S(36세)	미국 국적, 회사원 (ㄴ기업 회장의 자)	'22. 1~10. 대마 매도 8회	'23. 1. 26. 구속 기소
20	T(36세)	무직	'22. 7. 대마 매수	'23. 1. 26. 기소중지 ※ 해외 출국



- '22. 9. 20. 대마 재배 혐의 등으로 경찰에서 A를 검찰에 구속 송치
※ 경찰은 A 주거지에서 대마 재배장비 등을 발견하고도 압수하거나, 압수한 대마에 대한 마약류 감정 의뢰 절차 없이 사건 송치
- '22. 9. 26. 검찰, A 주거지 압수수색 등 직접수사 착수
(C·D의 대마 매매와 관련 메시지, 송금내역 등 확보)
- '22. 10. A 주거지에서 압수한 국제우편물(해외 마약류 판매상이 발송한 대마가 은닉) 등을 토대로 추적수사 끝에 B, C, D, E 구속
- A, B 각 구속기소
- ~'22. 11. 13. E가 소지하고 있던 액상대마를 추적한 끝에 F 구속
※ F는 국내 시판되는 빈 액상담배 카트리지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액상대마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액상대마 카트리지 제조, 판매 등 유통
- C 구속기소
- ~'22. 11. 24. E 등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H, I 등 입건
- D~G 각 구속기소
- '22. 12. 2. H, I 불구속 기소
- '22. 12. 7. J, K, L 자수서 제출
※ J의 경우 자수서 제출 전 범행 관련 차량 추적하여 수사 증이었던 상황
- '23. 1. 10. J 등으로부터 대마를 수수한 M 입건
- '23. 1. 19. C와 함께 D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R 구속 기소
- ~'23. 1. 26. 관련자들 통화내역 및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H에게 대마를 준 N과, N에게 대마를 매도한 P·Q, P에게 대마를 매도한 S 등 입건
- N, P, Q, S 각 구속기소, 검거 전 검찰에 자수서 제출한 J, K, L, O 각 불구속 기소, M, Q, T 출국하여 기소중지

1. 검찰의 직접수사를 통해 마약사범 대거 적발

- 검사는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수사단서를 토대로, 마약류 유통 범죄를 검사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시킨 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시행 취지에 따라 직접수사에 착수
 - ※ 마약류 유통 범행은 검사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22. 9. 10. 개정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접수사 가능해 짐
- 마약수사에 있어 검찰의 직접 수사가 존재해야 충실하고 빈틈없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실증한 사례임

2. 소위 '재벌가 3세' 등 부유층의 마약범죄에 경종

- 마약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부 재벌·중견기업 2~3세, 前 고위공직자 자녀, 사업가, 유학생, 연예계 종사자 등 사이에 자신들만의 공급선을 두고 은밀히 대마를 유통, 흡연해 온 범행의 전모를 밝혀 구속수사 등으로 엄단함
- 이들은 대부분 해외 유학시절 대마를 접한 상태에서, 귀국 후에도 이를 끊지 못하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흡연해 온 경우로서,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줌

3.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 죄의식이 약화된 실태를 확인

- ①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하다 적발된 사례(C), ② 임신 중인 처와 소위 '태교여행' 중 대마를 흡연한 사례(S), ③ 형제가 함께 직업적으로 대마를 판매하다 검거된 사례(D, G)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죄의식이 희박해진 실태를 확인

4. 대마 또한 필로폰 못지않게 그 중독성과 의존성이 심각한 마약으로, 이를 엄단하여 유통, 확산을 차단할 계획

- 대마는 필로폰 등 중독성이 더욱 강한 다른 마약류로 진입하는 ‘관문’ 마약류로, 이미 대마범죄로 단속,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으로 검거되었는바, 대마의 중독성과 의존성 역시 매우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연도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전체사범	1,475	10,921	1,727	1,467	9,613	1,533	1,804	11,611	2,629	2,198	12,640	3,212	1,745	10,631	3,777
재범인원	115	4,451	565	123	3,946	553	207	4,652	851	196	4,704	1,033	256	4,233	1,427
재범률(%)	7.8	40.8	32.7	8.4	41.0	36.1	11.5	40.1	32.4	8.9	37.2	32.2	14.7	39.8	37.8

<출처 : 대검찰청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

- 향후에도 서울중앙지검은 대마 유통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내 대마 유입 및 유통 차단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

[첨부 사진]



[A 주거지에서 압수한 대마 재배 텐트와 장비]



[C 주거지 내 대마 및 재배장비,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거실에 장식된 대마 줄기 등]



【D와 G 주거지에서 압수된 판매수익금(영어사전 형태의 소형금고에 은닉)】



【E의 범행장면이 녹화된 호텔 지하주차장 CCTV 영상 캡처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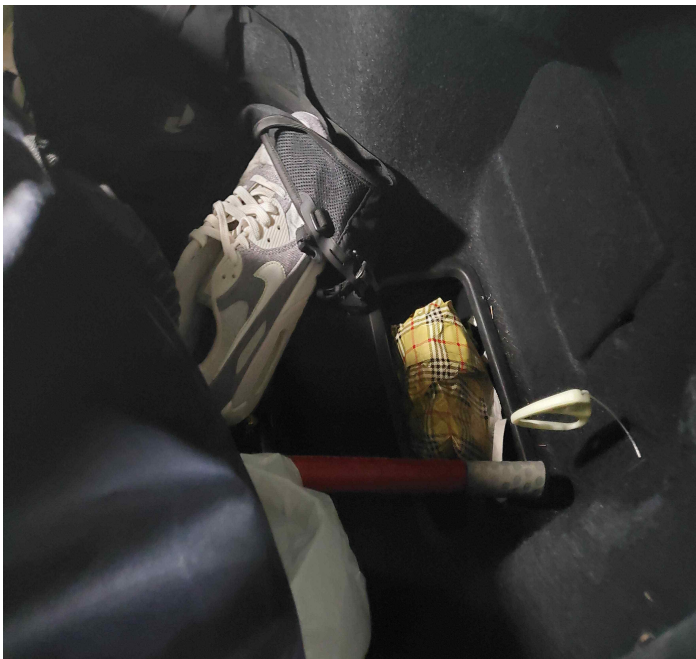
【F 주거지에서 압수한 액상대마 주입용 주사기, 액상대마 카트리지】



【P의 차량에서 발견된 가방】



【가방 안에 보관된 그라인더, 흡연기구】



【H의 차량에 은닉된 액상대마 카트리지】

